



▲ 몇번의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럴 때마다 도와준 분들을 생각하며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난 것이 오늘의 미래산업을 있게 했다고 전하는 정사장이 옛 일을 회상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충남 천안에 자리한 미래산업주식회사(대표 鄭文述)는 반도체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전문 벤처기업이다. 지난 1983년 설립해서 올해로 14년이 되었지만 미래산업을 주위로 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95년 6월 주식 장외시장에 등록된 후 거의 매일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주당 발행가가 4만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현재 주당 30만7천원에 이르자 38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미래산업을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터다. 이처럼 성공한 벤처기업의 신화를 이룬 인물은 18년의 공직생활을 청산한 평범한 퇴직자인 정문술사장이자다. 정사장은 살얼음같은 중소기업 현장에 혈혈단신으로 뛰어들었다가 공직생활에서 받은 퇴직금 4천만원중 2천만원을 고스란히 사기당한 씁쓸한 경험을 맛보기도 한 그저 평범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래산업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남들이 하기

### 기술개발성공사례

## 반도체 검사장비로 “돈방석” <주>미래산업

반도체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전문 벤처기업 (주)미래산업은 창업 15년만에 「테스트 핸들러」라는 장비를 개발, 돈방석에 앉았다. 공직생활 18년을 끝내고 중소기업현장에 뛰어들었다가 퇴직금을 사기당하고, 18억원 들인 「완전자동웨이퍼 검사기」개발마저 실패하는 등의 역경을 딛고 새로운 기술개발로 벤처기업의 신화를 창조했다.

싫어하는 분야를 파고 들어 그 곳에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 사장이 창업 전에 마음먹었던 ‘기술력으로 승부하자’는 마음가짐은 창업을 꿈꾸는 수많은 예비창업주들에

게 귀감이 될 만하다.

### 70년 일본 엑스포서 「IC」인연

한편 회사를 창업하면서 반도체를 주요 아이템으로 착안한 배경에 대해 정사장은 지난 70년 일본 엑스포를 다녀온 기념으로 산 도시바에서 만든 라디오에 「IC」라고 새겨진 문구가 가슴에 깊이 박혀 그때 내가 만약 사업을 시작한다면 반도체분야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반도체분야를 사업 아이템으로 막상 정해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반도체분야는 크게 디바이스(device), 원자재, 장비 세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중에서 디바이스와 원자재는 아무래도 기술집약적이며 대량생산이여

야 하고 거기에 자금과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국내 대기업에서 워낙 잘해나가고 있어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는 건 장비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정사장은 전한다.

## 「완전자동웨이퍼검사기」개발 실패

따라서 미래산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IC를 조립하는데 쓰이는 기구인 '리드프레임매가진'을 생산하는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지만 그때 당시 국내 현실로 볼 때 '리드프레임매가진' 정도의 간단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어서 이 정도의 개발도 대단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남들이 안하는 것을 하자니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제일 힘든 것은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퇴직 기술자와 공고를 갖 졸업한 4명을 훈련시켜 미래산업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 처음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한 돈 외에 수익금 몇억을 손에 거머쥐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분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이렇게 첫 사업에 발을 들여 놓고 다음 목표로 잡은 것이 '완전자동웨이퍼 검사기'라는 장비였다. 이 장비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장비로 정사장은 이 장비를 만들기 위해 미국 메카트로닉스 최고 기술자를 직접 찾아가 개발에 착수, 18억원을 투자했으나 결국 개발에 실패를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보고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지 '완전자동웨이퍼검사기' 개발엔 실패했지만 여기에 쏟아부은 시간과 돈, 그리고 이 기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는 '테스트 핸들러'라는 장비를 100% 국내기술로 만드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했다. 바로 이 '테스트 핸들러' 장비가 오늘의 미래산업을 국내 반도체 장비분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막대한 외화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자노릇을 한 제품이 된 것이다.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최종 검사장비로 모두 2만2천개의 부품으로 구성, 최종 완성된 메모리 반도체를 영하 35도, 영상 1백35도의 온도에서 전기를 가해 불량 유무를 가려내고 포장까지 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이다. 이 장비는 국내에 있는 현대, 삼성 등 반도체를 취급하는 대기업이 주 고객으로 미래산업에서 '테스트 핸들러'를 만들기 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전체 물량의 60%를 미래산업이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비는 국내수요에 그치지 않고 95년에는 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TI)에 2백62만달러, 대만 FIC 및 싱가포르 베이트사에 총 5백2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 「테스트 핸들러」 100% 국내기술

기술력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문술사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미래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업소유권을 살펴보면 출원 1백8건중 등록 55건, 36건 출원중/특허 2건 등록, 15건 출원중/실용실안 27건 등록, 51건 출원중/의장등록 27건 30건 출원중/상표권 4건 등록, 12건 출원중/ 이외에도 해외특허출원 15건이다. 96년도에만 특허 4건, 실용실안 4건, 의장등록 1건, 상표 1건을 출원했다.

이런 막강한 기술력은 전체 종업원수 2백73명중 무려 27%인 75명의 연구개발인원이 꾸준히 개발해 온 결과이고 기술개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정사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연구개발에 실패한 연구원에게도 추궁을 하지 않는 등 연구원에 대한 배려가 철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디서 배겨온 기술이 아닌 미래산업만의 독자기술로 92년 31억원이었던 매출액은 93년 65억원, 94년 2백27억원, 95년 3백18억원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급기야 95년에는 김영삼대통령이 이 회사를 방문,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기자리를 지키며 외화낭비를 막는 미래산업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미래산업은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로 대통령상, 과기처장관상, 통산부장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였고 90년에는 유망선진 기술기업으로 선정돼 94년엔 중소기업인상을, 95년엔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96년엔 현대전자 우수협력회사 표창 등을 받았다.

정사장이 이처럼 '오뚜기'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충남 천안으로 회사를 이전할 때 모두 동의하고 따라와 준 직원들과의 일체감이 없었던들 어찌면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사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정사장은 기술인력에 한해선 본인이 원하면 회사비용으로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했고, 과장 이상 직원에 한해서는 자동차를 사주고 유지비까지 보조한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다른 중소기업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런 호조건으로 우수 인력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사장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의 의료비, 고교 및 대학 학자금은 전액 지급하며, 천안으로 회사를 이전할 당시에는 전세 또는 주택구입비로 3천만원까지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도 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2백주에서 1천주씩 우리사주를 지급했는데 현재 시가로 7천만원에서 3억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해서 직원들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 주기도 했다.

천안의 3공단에 제2공장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 정사장은 죽기 전에 사회에 좋은 일도 좀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